

공동체 소식



목주 기도 성월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는 달입니다.

성모님의 공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일체인 하느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10월 기도지향

- 현교정(돈보스코), 조경희(요안나 프란치스카) 가정
- 정석원(라파엘), 안혜진(임마콜라따) 가정

목주 기도 성월

전 세계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목주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주 기도가 널리 확산되면서 1883년 레오 13세 교황은 시월을 ‘목주 기도 성월’로 정하며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위하여 목주 기도를 자주 바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평협 회의

- 일시 : 10/21(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지하 교육관

10월 구역미사 안내

새로 부임하신 주임신부님과 공동체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구역 : 10/26(금) 오후 7시, 안병환(발렌티노) 형제 가정,**
 2624 W.145th St. Leawood, KS 66224

주일학교 개학

우리 공동체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주일학교가 10월 14일 개학을 하였습니다. 교육분과 박희영 카타리나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리, 문화, 인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조연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21(일) 오전 9시**
 - 장소 : 지하 교육관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2·3 구역, 구역미사에 함께 한 모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10/27(토) 오후 5시, 로렌스 공동체 미사가 있습니다.
- 10/28(일) 중심미사 후,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50	220	167, 197	61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정수한(베 드 로)	김태중(예레미아)
	정예찬(미 카 엘)	문예나(요 안 나)
다음주일	정준구(파비아노)	안동현(프란치스코)
	정병훈(보니파시오)	안지영(카타리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김주연(세실리아)	고영방(스테파노)
	최은미(아 네 스)	김명은(안 젤 라)
다음주일	김명은(안젤라)	류기범(요 셉)
	박혜정(가타리나)	신혜경(마 리 아)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지은경(리브가), 이대숙(사비나), 박정욱(수산나)
다음주일	김주연(세실리아), 김수연(율리안나), 안현숙(크리스티나)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카타리나)
다음주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10월 14일>
- 미사참례 : 97명
 - 주일헌금 : \$403
 - 교 무 금 : \$97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교회는 1926년부터 전교 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들과 전교 지역 교회를 돕고자 전교주일을 정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를 통해 교회 본연의 사명이 선교에 있음을 일깨우고, 세상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격려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전교할 것인가’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성화해설

나주 성당(나주 순교자 기념경당)
광주대교구, 전라남도 나주시 산정동 소재.

나주 성당은 콜롬반 외방전교회가 한국에서 건립한 첫 번째 성당으로 구내에 1839년 기해박해 때 나주에서 순교한 이춘화와 병인박해가 한창이던 1872년 무학당에서 순교한 강영원, 유치성, 유문보의 신앙을 기리는 경당이 자리하고 있다. 나주 성당은 무학당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성역화를 추진해 2001년 나주 초등학교 내의 무학당 순교 터에서 주춧돌을 옮겨와 무학당을 상징하는 구조물을 세우고, 2004년 ‘빈무덤’ 형태의 순교자 기념 경당을 건립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이사 2,1-5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만 백 성 이 당 신 의 구 원 을 알 게 하 소 서

- 하느님 저희를 어여뵈 여기소서. 저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저희에게 돌이키소서. ◎
- 정의로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리라. 춤추며 기뻐하리라. ◎
- 오곡 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느님이 복을 주심이다. 하느님 저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 ◎

제 2 독서 : 로마 10,9-18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마태 28,16-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쉐 마

“출세냐, 섬김이나”



오늘 복음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원하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제자 두 사람이 그들의 소원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는 그 제자들이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청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곧 메시아로 이 세상에 나타나서 통치하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 편에, 또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런 메시아의 나라에서 두 형제가 모두 높은 자리에 앉아 세도(勢道)를 부리게 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고 소원성취를 빌던 그 마음을 연장하여 그리스도 신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청한 것도 그런 맥락 안에서 된 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 신앙이라면, 하느님은 우리의 민원(民願)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解決士)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비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는 처세(處世)법입니다. 거기에는 알팍한 이해타산(利害打算)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느님에게 아부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한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고, 자기들은 예수님 덕으로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사람들을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염원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입신출세 하는 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시는 일은 종과 같이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교회 안에 봉사직무(奉仕職務)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봉사직무는 교계제도(教階制度)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계제도라는 신분계급으로 포장된 것은 교회가 로마제국과 중세 봉건사회를 거치면서 그 사회에서 얻어온 포장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군림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신분서열로 군림하겠다는 착각을 합니다. 오늘의 사회에서 신분을 강조하는 인간집단의 실효성은 저하됩니다. 오늘은 인간의 효용성이 신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남의 말을 듣고 솔직히 토의하는 사람이 실효성을 지닙니다. 로마제국도 사라지고, 중세봉건사회도 없어졌습니다. 섬김을 위한 봉사직무라면, 섬김이 돋보이게 교회 직무는 재편(再編)되어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설명하십니다. 첫째가 되는 길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유언으로 성찬을 남기셨습니다. 그 성찬의 중심을 이루는 말씀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몸.” “너희를 위해 쏟는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서 사람들을 섬긴 삶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서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나 한 사람 혹은 내 가족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옛날 정화수(井華水)를 떠놓



마 중 물

갈매기의 죽음

영국을 여행하던 한 여행객이 해안 지방을 지나는 중에 많은 갈매기들이 모래 사장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리 살펴봐도 자연적인 예사 죽음은 분명 아니었다. 바다는 청정했으며 갈매기들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라 여겨졌으므로, 의아하게 여긴 여행객은 이내 그것을 지우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한 인부에게 갈매기들의 죽음의 원인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인부가 대답해 주었다.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은 갈매기가 많은 것을 보고 먹이를 던져주게 됩니다. 갈매기들은 과자, 사탕 등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을 받아먹게 되지요. 실은 그런 음식은 갈매기들에게는 해로운 음식들이며, 좋은 자연 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정작 갈매기들이 죽은 것은 음식의 유독성에 있지 않습니다. 갈매기들의 죽음은 놀랍게도 특이한 곳에 원인이 있지요. 그것은 갈매기들이 그렇게 과자, 사탕 등 맛있는 것만 받아먹다 보면, 실로 좋은 자연 음식에

대한 식욕을 전혀 잃어버리게 됩니다. 철이 지나고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갈매기들은 그들에게 좋은 자연음식 먹이가 바다 속에 그렇게 많지만, 여행객들의 맛있는 음식만을 기다리다, 결국 갈매기들은 굶어 죽고 만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백성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집착하면, 영적인 것에 대한 미각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하느님의 은혜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말로는 갈매기의 예가 가르쳐주듯, 죽음에 가까이 가는 길 뿐입니다.



유머 게시판

“역시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 세 명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무단침입으로 야만인들에게 붙잡혀 곤장 100대 썩을 맞게 되었다. 다행히 야만인 추장은 이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 주기로 했다.

첫째로, 미국인은 “제 등 뒤에 방석 6장을 올려 주십시오.” 하고 주문하였다. 추장은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곤장 100대를 맞았다. 하지만 방석이 너무 얇아 70대 쯤 방석이 다 찢어져, 나머지 30대를 맞곤 아물아물한 정신으로 “그래도 나는 창조력이 뛰어난 민족이야.” 중얼거리곤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과정을 지켜 본 일본인은 “제 등 위에 침대 매트리스 6개를 올려 주십시오.” 하고 주문하였다. 일본인의 소원을 들어 주고 곤장이 시작되었다. 일본인은 100대를 맞는 동안 졸곧 웃기만 하다가 일어났다. “역시 나는 모방의 기술이 뛰어난 민족이야.” 하며 좋아했다.

마지막 남은 한국인을 향해 추장은 말하였다. “자, 네 소원은 무엇이나?” 한국인은 ‘썩’ 웃으며, “저 일본놈을 제 등 뒤에 올려 주십시오.”

